

# 美한인사회 연방 상원1명·하원의원 3명 배출...“힘 커졌다”

앤디김 첫 상원의원 당선...영김·매릴린 스트리클랜드 3선

데이브 민, 하원 첫 입성...“의회서 한국계 위상·광목할 성과”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된 미국 연방 의회 선거에서 한인 사회는 연방 상원의원 1명과 연방 하원의원 3명을 배출한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118대 연방 의회에서 하원 의원 4명이 당선돼 활동했던 것에 비해 내년 1월3일 출범하는 119대 연방 의회에서 미국내 한인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앤디 김(민주·뉴저지) 하원의원이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앤디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뉴저지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후 6년만에 상원에 진출하게 됐다.

또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40선거구) 의원과 매릴린 스트리클랜드(민주·워싱턴 10선거구) 의원이 각각 3선에 성공했다.

두 의원은 한국계 여성 정치인으로서 처음으로 3선 연방 하원의원에 나란히 성공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어 캘리포니아 주의원으로 활동해 오던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47선거구) 후보가 처음으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반면에 캘리포니아 45선거구에서 3선 고지에 도전했던 공화당 소속 미셸 박스틸(한국명 박은주·69) 하원의원은 아깝게 낙선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45선거구가 선거

22일만인 이날 개표를 완료한 결과 스틸 의원은 49.9%의 득표율에 그쳐, 50.1%를 득표한 민주당의 데릭 트랜 후보에게 패배했다.

스티 의원은 개표 중반 우세를 이어가며 승기를 잡는 듯 보였으나, 후반에 역전된 후 결국 600여표 차이로 석패하면서 3선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스티 의원의 경쟁자였던 트랜 후보는 베트남계 변호사로, 해당 선거구에 밀집해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의 표를 한데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 차원에서 공화당의 하원 의석을 뺏아낼 수 있는 전략 지역으로 분류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대며 트랜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한국계 후보가 출마한 지역의 개표가 완료돼 선거 결과가 확정되자 한인사회는 한국계 정치인들이 단기간에 정치력 신장을 이룬 것에 크게 고무된 분위기

다.

미주 한인유권자연대는 “한인사회가 미국의 아시아계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며 “특히 연방 상원의원 1명을 배출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미국 내 아시아계 중 중국계가 10여년간 지속된 미중간 긴장 관계의 영향으로 정치권에서 추출한 사이 인도계와 한국계가 특히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4명의 한국계 정치인이 연방 의회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는 것은 물론, 그간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대변할 것으로 한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차세대 젊은 한인들의 정치 진출 통로가 훨씬 더 폭넓게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 휴전 기쁨도 잠시...폐허가 된 고향 복귀한 주민은 '절망'

휴전 지속 가능성에 의구심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의 휴전 소식에 가장 기뻐한 것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피란민들이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휴전이 발표되자 수도 베이루트에서 남부 레바논 국경지역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에서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전쟁 발발 직후 이스라엘의 집중포화를 피해 피란길에 올랐던 국경지대 주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동차에 올라탔기 때문이다. 집을 떠날 당시 쟁겨온 각종 가재도구를 실은 자동차들은 막 막힌 고속도로에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지만, 피란민들은 축제 분위기였다.

몇개월 만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이스라엘과의 휴전은 사실상 헤즈볼라의 승리’라는 분위기가었다.

그러나 이 같은 축제 분위기는 남부 도시 시돈 입구에 레바논 군이 설치한 검문소에 도달하는 순간 사라졌다.

피란민들은 ‘집 주변에서 불발탄을 보더라도 절대 손대지 말라’는 경고를 담은 전단부터 읽어야 했다.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났던 피란민들이 귀환길에 나선 가운데 휴전 첫 날인 지난 27일(현지시간) 주민들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폐허된 거리를 지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설마설마하던 피란민들이 목격한 것은 이스라엘의 웅단폭격이 남긴 폐허였다.

유리창이 깨지고, 벽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를 본 피란민들은 운이 좋은 편이었다. 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콘크리트 더미가 쌓인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도 적지 않았다.

운 좋게 집이 파손되지 않은 피란민

들도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60일간의 휴전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언제든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피란민은 일부 주민이 헤즈볼라의 깃발을 흔들면서 환호하자 “무슨 승리를 했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폐허와 죽은 사람들을 보라. 우리는 모두 패배했다”고 말했다.

국경 넘어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도 휴전 소식에 기쁨보다 걱정이 앞선 상황이라고 CNN이 전했다.

전쟁 발발 후 계속됐던 헤즈볼라의 공격이 멈추게 된 것은 환영할만하지만, 근본적인 위험은 여전히 있다는 정서가 강하다는 것이다.

헤즈볼라와의 적대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체념이다. /연합뉴스

## 우크라-러 특사에 켈로그 지명

트럼프 1기때 NSC 근무...평소 우크라전 조기종전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문제를 전담할 특사로 군 장성 출신인 키스 켈로그(80)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키스 켈로그 장군을 대통령 보좌관이 자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로 지명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키스는 나의 1기 행정부(2017-2021년) 때 고도로 민감한 국가안보 부문에서 일한 것을 포함해 군과 업계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함께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고, 미국과 세계를 다시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출신의 퇴역 육군 중장인 켈로그 지명자는 트럼프 집권 1기 때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을 맡았다.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1기 종료 후에는 친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

연구소 미국안보센터장을 맡아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고문 역할을 담당했다.

켈로그를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로 발탁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결한다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켈로그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미국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에 속히 종전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켈로그는 미국 대선 전인 지난 6월 인 터뷰에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이룬 시일에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는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미국의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푸틴에게는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켈로그가 지난 4월 공동 집필한 보고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에 앞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공급해 러시아의 진격을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연합뉴스

방수제 · 바닥재 · 혼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sup>2</sup>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sup>3</sup>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방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등록번호: 10-2017-00000000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